

# 국무조정실 “경제분야 성적표 상당히 미흡”

## 박근혜 정부 2년차 업무보고 시작 “진땀겨 정신으로 비정상적 정상화”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오후 국무조정실·법제처·권익위원회를 시작으로 2014년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 국정운영의 밑그림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모두 9차례에 걸쳐 17부3처5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업무보고는 오는 24일까지 지난해 42일의 절반 수준인 20일 동안 업무보고가 완료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각 부처에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개혁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 혁신 경제 ▲내수 활성화 등 '3대 추진전략'의 실천에 초점을 둘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정부 모든 부처가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과제가 과감한 규제개혁”이라며 “규제개혁은 우리 정부에서 올해는 꿈속에서 꿈까지 꿀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규제 완화와는 연결 지어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만 과감하게 없애면 나머지는 투자자들이 알아서 일 자리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일 자리를 만들겠다는 소리보다는 규제 완화하겠다는 소리가 더 현실적인 얘기”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비정상적 관행과 과제에 대해, “작은 과제 하나라도 비정상적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끝까지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도그 보다는 진땀겨가 더 한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떨어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고 하는데 국무조정실은 그런 진

땀겨 정신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신년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정부 5년간 추진하기로 돼있는 140개 국정과제의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경제분야의 성적표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보고했다.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정윤수 명지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이던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국정과제평가단’(평가위원 10명·민간전문가 120명)을 구성해 실시했다. 국정과제에 따르면 140개 국정과제 중 집행이행도나 목표달성도 측면에서 ‘우수’로 평가된 과제는 전체의 20.7%인 29개로 집계됐다. ‘보통’은

84개였으며, ‘미흡’은 27개였다. 이를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과제 별로 분류해보면 평화통일 기반구축 분야에 속한 17개 과제 가운데 7개 과제(41%)가 ‘우수’ 성적을 받았다. 국민행복 분야에서는 64개 과제 중 14개(22%), 문화융성 분야의 경우 10개 과제 중 2개(20%)가 ‘우수’로 평가받았다. 특히 경제부흥 분야에 속한 42개 과제 가운데 ‘우수’ 평가가 나온 과제는 6개(14%)에 그쳐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성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조정실·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에 대한 2014년도 국정평가 종합분야 업무보고에서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5일 오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4년만의 ‘리턴매치’ 불붙은 공방전

이용섭 “검교·총인비리·공문서 위조 시민 자존심 실추”  
강시장측 “구시대 비방전으로 시작 ...공직자 폄하 말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5일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강준호 광주시장과의 경선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4년 만에 ‘리턴매치’를 치르는 만큼 이 의원의 출마선언과 함께 양 진영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공방은 이 의원의 출마기자회견에서 강 시장의 지난 4년간 시장 성과를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출마기자회견을 통해 “5·18 기록물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나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등은 평가받을 만한 성과지만, 외형적인 성과에만 주력하다보니 그동안 당당했던 지난 시절의 광주정신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며 “검코사건, 총인비리, 세계수업선생권대회 유치과 등에서 발생한 공문서 위조 논란 등은 광주시민들의 자존심을 크게 실추시켰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또 “가시적 성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새누리당식 오만과 독선적 리더십이 광주에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 시장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대해 강준호 시장은 “아름다운 경선은 상대에 대한 인정

과 존중”이라며 “비방으로 시작하는 이용섭 의원의 출마회견을 개탄한다”고 반박했다. 강 시장 측 조경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의원은 수차례 ‘아름다운 경선’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구시대의 전형인 비방전으로 선거를 시작했다”며 “권위주의적 리더십이니, 새누리당식 오만과 독선적 리더십 등의 표현은 강준호 시장에 대한 명백한 비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나만 옳고,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은 불의하고 무능한 집단인 양 매도했다”며 “광주시장, 자신이 속한 민주당, 시장성과를 위해 땀 흘려 뛰고 있는 6000여명의 공직자들을 무능한 집단으로 폄하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의 기자회견은 독불장군식, 분열주의적 선동”이라며 “성숙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는 것은 4년 전 경선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는 점 때문으로 분석된다. 당시 강 시장은 37.8%의 득표율을 올렸고 이 의원은 37.35%를 획득했다. 0.45%포인트 차로 희비가 엇갈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이용섭 광주시장 출마 선언 “정의로운 민생시장”

### “본선서 이길 후보 뽑아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5일 ‘정의로운 민생 시장’을 기치로 내걸고 광주시장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과 함께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겠다”며 “청렴한 경제분야 전문가로서 광주시민의 민생을 책임질 책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광주가 경쟁력을 갖으려면 과거의 낡은 방식, 권위적 행정, 퇴행적 관행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시민과 협치하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며 “광주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적 신뢰를 잃은 민주당, 정치적 섬으로 고립되고 있는 호남, 정의로움을 잃어가는 광주의 현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며 “광주에서부터 혁신적인 변화를 이뤄 정의롭고 새로운 광주를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주가 2017년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인물이 민주당 후보가 돼야하고, 새 정치에 부합하는 아름다운 경쟁을 통해 시민의 선택을 받아 역사에 남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시장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선공후사 정신을 가져야 시민으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대한민국 최초로 엄정한 국

회인사청문회를 3차례나 문제없이 통과함으로써 도덕성과 정책능력을 검증받았다”며 도덕성과 자질론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별도의 기회를 잡아 말씀드리겠다”며 “기득권에 연연하거나 집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당당한 광주, 시민주인시대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잘사는 광주 ▲취약계층과 동행하는 따뜻한 광주 ▲문화예술 메카 육성을 통한 찾아오는 광주 건설 ▲정책의 일관성 유지 ▲전남도와의 상생 협력체계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꿈엔들 잊힐리아, 가족 그리고 고향땅

김은영의 '그림 생각'

(61) 가족

“문득 아름다운 것과 마주했을 때/지금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고/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대는/사랑하고 있는 것이다//그윽한 풍경이나/제대로 맛을 낸 음식 앞에서/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그 사람은 정말 강하거나 아니면 진짜 외로운 사람이다...” <이문재 작 '농담'중에서>

맛있는 음식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올릴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 한다. 명절 때마다 귀성행렬로 이어지는 민족 대이동을 보면 새삼 가족의 의미가 사무치게 전해진다. 부모 형제 자식은 그 어떤 인연이기에 열 시간 아니, 그 이상의 교통 체증을 견디게 하는 것일까? 고향에서 맛본 그 '훈집'이야말로 타향에서의 온갖 시름을 이겨내게 하는 명약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프랑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1889~1973)도 “가정이란 이 세상에서 최초로 가장 순수한 의미로서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공동체”라고 했고, 가정에서만 이 나의 '잘나고 못나'를 따지지 않고 오직 '있음' 자체를 존중하기에 모든 윤리의 바탕으로 꼽았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황영성 '가족'(1995년 작)

서양화가 황영성화백(1941~ )의 '가족'(1995년작) 시리즈가 꼭 그런 작품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고향의 원형'이라는 게 있다면 아마 이런 모습일 것 같다. 바라만 보아도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준다. 숨은 그림 찾기처럼, 정겨운 가족의 얼굴을 찾았는가 싶으면 어느새 우리의 시선은 눈 발 지나 작은 마을에서 더 큰 마을로 건너간다.

작가에게 '가족'은 '그리움'이다. 유년 시절 피난길에 떠난 너른 고향땅과 헤어진 가족은 그대로 화가의 마음에 그림으로 새겨졌고, 영혼의 기록이 된 듯싶다. 작가에게 '가족'은 그저 가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가족의 감성으로 세상의 모든 존재를 깨안으면서 우주로까지 나아간다. 황영성의 그림처럼 '가족적인 것'의 복원이야말로 현대사회에서 잃어버린 '인간적인 것'의 회복일 듯싶다.

## 원장이 직접 챙기는 기숙학원 - 서울케이스사관학원

# 내 자식처럼 제가 직접 책임집니다.

**합격생들이 서울케이스사관을 말합니다.**

원장님께서 세 성적은 물론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한번쯤 딴 생각을 하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면 어김없이 원장님께 호출을 당했고, 속마음과 고민까지도 관리(?)를 받았었습니다.

정재훈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합격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는 유해환경이 전혀 없습니다. 개인별 독서대가 배정되기 때문에 자율학습할 때 체계적 학습이 가능하고, 시험장과 거의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고사도 봅니다.

정지산 - 한국고원대학교 수학교육과 합격

원장님이 수능 3주 전에 과목별 출제 예상 내용을 원장시간에 말씀하셨는데, 그 적중도에 놀랐고, 특히 언어 지문 예언에 저는 정말 탄복하고 감격하였습니다.

황두현 - 고려대학교 합격

“원장과 모든 학과 선생님이 학생과 함께 숙식하면서 목표를 쟁취하도록 합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공부하는 방법, 요령, 공부하는 습관을 터득하도록 합니다.”

원장 김항은

**서울대 고대 연대 의치계열 교대사관학교**

- ☑ 원장, 그리고 학과 선생님과 학생이 24시간 함께 합니다!!!
- ☑ 토·일요일, 국경일, 추석연휴에도 정상 수업!!!
- ☑ 성공! 오직 공부만! 연간 휴가 단, 9박 10일!!!
- ☑ 국어는 국어만으로, 수학은 수학만으로, 영어는 영어만으로 각 과목별 수준 반편성 실시!!!

**재도전! 조기 특강반**

개강 | 2014년 2월 16일(일), 2014년 3월 1일(토)  
대상 | 서울대, 고대, 연대, 의치계열, 교대, 사관학교 지원 예정자  
상담 | 상담실(055.585.5003) www.scoa.co.kr

※ 원장과 학과선생님들이 학생과 함께 기숙합니다!

원장직통 010.9177.4522 상담실 055.585.5003